



美國, 小麥大豐 예상

미국의 84~85곡물연도(84. 6. 1~85. 5. 31) 중 국내 및 수출용 소맥가격은 올해 소맥생산의 대풍작 예상에 따라 6년만에 최저수준인 부셸당 3.2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국 농무성이 최근 밝혔다.

농무성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의 옥수수생산도 전년의 42억부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77억 6천만부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무성은 84~85곡물연도중 소맥평균가격이 전년도 부셸당 3.50달러에서 최저 3.20달러, 최고 3.50달러의 범위에서 형성될 것 같다고 밝히고 이러한 가격은 지난 78~79년도 중의 부셸당 2.97달러 이후 최저시세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무성은 올해 미국의 소맥생산량은 지난 해의 24억 3천만부셸보다 1억 2천만부셸이 많은 25억 5천만부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81년의 28억부셸 및 82년 28억 1천만부셸에 이어 연도별 생산실적으로는 세 번째의 풍작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소맥풍작에 따라 내년 5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의 소맥공급 과잉분이

14억 7천만부셸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금년 5월말 현재 소맥재고량은 83년 5월말의 15억 4천만부셸에서 13억 9천만부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日本の 172개 食品會社들 中共 進出

日本の 172개 식품회사들은 중공의 식품가공 및 유통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42개 이상의 사업계획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 商業部가 일본식품유통협회에 인공조미료 생산 및 냉동식품 유통설비 등을 포함한 식품현대화계획에 민간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중공과 일본이 오는 8월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 쌍무협상에서 중공의 전반적인 식품현대화 사업계획에 관해 협의할 것이며 중공은 최종적으로 일본측이 수백건의 개발계획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공은 현재 개별기계의 수입을 통한 부분적인 현대화 보다는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 식품업 전체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시카고의 食料品銀行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자나 판매점에서는 보충기한 초과, 함량미달, 시험불합격 신제품, 포장용기 파손품, 그리고 일부 부적당등의 이유로 팔리지 못한 식료품중 위생적이고 영양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폐기하는 경향이 허다하여 하루에 한끼 정도 거르는 시민이 약 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시카고 市の 「大시카고食料倉庫」가 1979년에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창고는 전국적인 Second Harvest 식료품

銀行網(40개 식료품은행으로 구성)의 하나로 식료품 증여기업과 자선 배포단체와의 교량역할을 맡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본 창고는 기증된 식료품을 수령, 보존한 후 자선배포 취급점에 할당분을 교부한다.

기증된 식료품의 70%가 154개 취급점(집중급식센터)에 배포되어 긴급대피소, 교도소, 고령시민센터, 유아 및 장애인 보호소 등의 식사로 제공되며 30%는 179개소의 취급점(식료품실)에 배포되어 정해진 식료잡화점에서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1982년도에는 시카고 지방의 결식인구에 대하여 550만파운드의 식물을 제공하였으며, 자선단체들에 대한 서비스 이외에 식품가공업자들에게도 공급하고 있다. 모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Second Harvest 식료품은행에서는 1984년도에 90개소의 식료품은행 개설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급식센터에 대한 봉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식료품 은행망의 기증식료품 확보와 배포의 최대 장애는 비싼 수송비이지만 81년에 4개 선박회사가 원조에 가담했으며 유명한 식품회사인 CPC North America사도 일체의 기증식료품을 무료로 Second Harvest망 소속 식료품은행에 선박수송하겠다고 나섰다.

식품凍害예방 박테리아 開發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분교 병리학교실은 최근 동교 연구진이 개발한 농작물凍害방지용 변형박테리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슈도모나스」라고 불리는 이 변형박테리아는 감자와, 토마토, 배, 감귤류등 과실류가凍害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물의 줄기와 잎에 기생하면서 얼음결정을 이루는 핵역활을 하는 「슈도모나스 시린개」 박테리아를 죽이도

록 화학처리과정을 거쳐 변형된 박테리아이다. 이 박테리아는 지난 해에 개발되었으나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동안 작물예의 배포를 미뤄 왔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섭씨 영하 5~6도의 추위에서도 견딜 수 있는데 「슈도모나스 시린개」라는 박테리아가 줄기와 잎에 기생하면서 얼음의 결정을 이루도록 핵역활을 하기 때문에凍害를 입어 자랄 수 없게 된다.

「버클리」대학이 개발한 변형박테리아는 바로 이凍害박테리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변형박테리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겨울에도 농작물과 과실유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遺傳工學에 의한 酵素제품 시장擴大

유럽의 1992년도 효소제품시장은 1982년도에 10배에 해당하는 8,902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 분야의 한 전문가가 분석하였다.

EEC 가맹국중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를 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양조, 낙농, 세정제, 분석용의 주요 분야에서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당가수분해효소, lipase등 주요 제품의 양은 급증할 것이며 유전공학에 의해 생산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동식물에서 추출하던 기존의 생산방법을 바꾸어 1990년대 중반에는 산업용 효소의 25~50%가 유전자가 조작된 미생물에서 생산된 효소로 대체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산업용 효소의 80% 이상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인데 이를 이용하는 식품, 양조, 낙농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서독, 영국, 덴마크, 네델란드는 수출용 효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덴마크의 Novo社는 유럽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소금물에서 자라는 植物 發見

소금물에서도 식물이 자라서 보통 식물처럼 열매를 맺는 작물을 발견했다고 美애리조나대학의 한 과학자가 주장했다.

애리조나대학 환경연구실험실의 「제임스 올레어리」부소장은 이러한 소금물 재배작물의 개발은 사막의 개간이나 기타 불모지의 개발을 위한 놀랄만한 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어리부소장은 식물학자들이 鹽生 식물이라고 부르는 이 소금물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은 특히 열대성기후 등 전세계에 걸쳐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식물중 「셀리코니아」라고 불리는 식물은 식용유의 주요 원료인 콩보다 더 많은 불포화화합물 지방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트리플렉스」라는 식물은 상당량의 동물사료를 거두어 들일 수 있고 매년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한다.

中共, 간장輸出 日本 앞질러

중공은 세계 간장최대수출국인 일본을 앞지르게 됐다고 중공 관영 英字 차이나 데일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糧油食品進出口 總公司의 말을 인용하여, 중공의 지난 해 간장수출은 기록적인 2만 7천 5백톤에 달해 1,05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穀物먼지 방지용으로

백등유 사용허용

미국식품약품회(FDA)은 곡물의 저장, 하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가라 앉히기

위해 White mineral oil(백등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했다.

FDA는 밀, 옥수수, 대두, 쌀 및 여타 사료 곡물의 저장, 하역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곡물 총중량의 0.0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백등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 농무성은 백등유의 사용이 곡물의 규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의 등급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美國, 殺蟲劑 EDB 使用규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살충제 EDB(에틸렌디브로마이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옥수수 및 밀생산과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의 열대성 과일 對美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EPA국장이 곧 EDB의 사용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 조치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의 8%, 밀의 2% 그리고 곡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13%가 잠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EPA국장이 EDB의 사용을 즉각 전면 금지시킬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무부관리들에 따르면 비록 단계적 사용금지조치를 취한다 해도 열대성 과일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로부터 반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내 관계법은 국내에 수입되는 열대성 과일로 인한 전염병 침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소독과정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EDB는 이 같은 소독약제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기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